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5호 【루계 제24913호】 주체104(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김양건동지, 오수용동지, 오일정동지, 리재일동지, 조용원동지, 박영식동지, 오금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양어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직된 이곳 양어장에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탁우에 세상에 이름난 맛좋은 물고기료리를 다 올려주고싶은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며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 연회상에 오른 철갑상어료리를 보시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철갑상어맛을 보이게 하실 결심을 굳히시였으며 신창양어장에서 다른 물고기와 함께 철갑상어도 기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통한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신창양어장을 7차례나 현지지도하시고 수백차의 교시를 주시면서 양어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여주신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당의 손길아래 천지개벽된 신창양어장의 구내를 걸으시면서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창양어장의 환경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이 가장 정확히 구현된 양어장이라고, 마치 식물원같다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몰라보게 일신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좋고 물좋은 기막힌 곳에 위치한 신창양어장이 한폭의 그림같다고 하시면서 그 어디에 가도 볼수 없는 선군시대의 희한한 풍경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보장해주시며 우리 나라 양어장의 본보기로 꾸려주신 신창양어장은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펼친 로동당시대경,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느라니 장군님 같으신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길러낸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조선은 세계로, 철갑상어는 바다로라고 하시며 한편의 시를 읊듯이 외우시던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떠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자랑으로, 날로 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면모를 보여주는 곳으로 전변된 신창양어장구내에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자고 하시면서 몸소 그 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양어못들과 철갑상어알깨우기장, 원소등을 돌아보시면서 양어장의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연지리적으로나 생태환경적으로 양어하기에 가장 리상적인 곳에 자리잡고있는 신창양어장은 생산면적은 물론 생산량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대규모의 양어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양어못들마다에서 철갑상어, 칠색송어, 룡정어 등이 욱실거리고있는데 볼수록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신창양어장에서 기르는 물고기들은 맛이 좋을뿐아니라 영양가와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였다.

철갑상어양어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알깨우기인데 이곳 양어장에서 고도기술을 요구하는 철갑상어알깨우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 양어기술이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창양어장은 양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을뿐아니라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하다고 하시면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양어기술척도를 보여주는 양어장, 나라의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본보기단위, 교육단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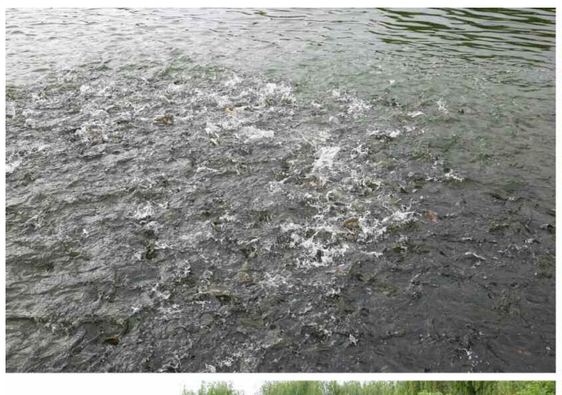
당의 양어방침관철에서 신창양어장이 기치를 들고 나가자면 양어장의 종합적인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양어의 현대화이자 양어설비의 현대화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자동사료공급기를 받아들이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설비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양어장의 설비현대화도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단위들과 합심하여 최신식양어설비들을 창안제작하고 적극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양어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기문제도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연에네르기발전소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양어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자연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양어품종을 더 찾아내며 양어못면적 대 로력, 물량 대 물고기생산량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로력절약형, 물절약형양어를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신창양어장에서는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다른 단위의 양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곳에 와서 선진적인 양어기술을 배워갈수 있도록 조건보장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펴주신 양어혁명의 불씨를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창양어장을 돌아보니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의 일군들과 양어장의 종업원들이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양어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박동규동무와 장창화동무는 선진양어기술을 받아들이고 양어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각자, 양어박사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창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양어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신창양어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양어를 더욱 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당중앙이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제 2 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5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가 13일과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이며 고상한 정신도덕적면모를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회는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 미풍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밑에 높이 발양된 고상한 풍모를 널리 일반화하여 청년들을 혁명적인생관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대회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청춘시절을 값높이 빛내여가고있는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과 전세대 청년미풍선구자들,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청년강국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청년들의 혁명적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라는 글발과 청년동맹휘장모형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청년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군시대의 애국청년이 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미풍선구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는 《조선청년행진곡》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긴 축하문을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양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갈 맹세의 구호를 힘차게 불렀다.

대회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4면으로 계속

축 하 문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가 열리였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이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의의깊은 대회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투철한 정신과 고상한 미풍을 발휘하며 청춘시절을 값높이 빛내여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과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혁명적인 사상과 견실하고 아름다운 도덕풍모를 소유한 훌륭한 인간들을 키워내고 그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감화교양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고 구현하신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며 정의롭고 아름다운것에 대한 동경심이 강한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우월한 교양방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나가시던 첫 시기부터 언제나 혁명열에 불타는 청년핵심들을 키워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의 위력한 력량으로 내세우고 청년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동맹이 강하면 무서울것이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과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 영예와 영광을 다 안겨주시면서 이 땅우에 청년중시정치의 빛나는 경륜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당중앙은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김일성민족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청년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깨끗한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긍정적소행들을 보석같이 귀중히 여기고 그 모범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책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을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혁명신념의 강자들로, 일편단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 량심의 인간들로 키워내는 밑뿌리로 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년대들마다에 언제나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였으며 청춘의 용솟는 힘과 열정으로 사회주의건설대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만방에 떨치였다.

청춘의 꿈과 리상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꽃피워갈줄 아는 미더운 청년미풍선구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탄광과 광산,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용약 달려나가 로동당시대의 새 기적,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에 자기들의 값높은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였다.

청년미풍선구자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진 섬과 심심산골의 분교들에 탄원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으며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고 전쟁로병들과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어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지극한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을 소유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 전체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양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혁혁한 위훈과 공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불굴의 청년전위답게 혁명선렬들과 선배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 오늘의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조선청년의 용감성과 단결력, 전투력을 더 높이 발휘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을 굳게 믿고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태여나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청년들은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청춘의 심장을 혁명에 바쳐야 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 서야 한다.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며 혁명의 전세대들이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높이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항일혁명전구들을 찾아 백두의 물과 공기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새겨안아야 하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의 전위들인 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신성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에서 청춘시절을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여야 하며 원군사업과 국방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전투임무수행과정에 희생된 군인들의 가족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

대회참가자들과 모든 청년들은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가 빨라진다고 한 당중앙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을 믿고 통채로 맡겨주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식,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과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의 재부를 늘이며 사회주의선경을 가꾸는 참다운 애국자,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여야 한다.

청년미풍선구자들은 당의 믿음과 인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언제나 대중의 본보기가 되며 스스로 청년교양의 북채를 쥐고 사상전의 북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는 우리 당의 청년핵심, 선군시대의 붉은 선동원이 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에 맞게 청년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강도높이, 실속있게, 꾸준히 벌려나가며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여 청년미풍선구자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모든 청년들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도록 교양과 투쟁의 도수를 높이며 우리 청년들의 머리속에 쉬를 쓸어보려고 발악하는 적들의 온갖 비렬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사상공세를 순간도 멈춤없이 심도있게 들이대야 한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모든 청년일군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청년들모두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을 비롯한 전체 청년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5월 13일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면에서 계속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력사는 청년들을 사상과 도덕의 강자로 키우시고 그들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령도의 력사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찌기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혁명의 첫 세대 청년투사들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동지애를 지닌 정의롭고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의 체현자들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전체 인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력사적투쟁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미덕과 미풍을 창조하며 시대를 앞장에서 선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자!》**라는 충정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새 세대 청년들이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청년중시를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전세대 청년들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본받아 나라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며 온 사회에 건전하고 화목한 도덕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앞장서 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빛나게 계승발전되여온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이고 고상한 풍모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5대교양을 강화하여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청년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들에게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청년들이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의 체현자, 선군시대의 청년영웅, 훌륭한 젊은이들로 자라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피눈물의 12월에 어버이장군님을 생눈길에 모실수 없다고 하며 자기들의 솜옷을 벗어 도로에 펴드리고 타래치는 불길과 산사태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한 청소년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청년들속에서 조국수호정신과 원군열기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 새 세대의 자랑스러운 기풍으로 되고있다.

우리 청년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실천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다 바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더욱 빛내여주었다.

보고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정신적불구자가 되여 부패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때에 우리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고상하고 훌륭한 미덕과 미풍들은 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영원한 삶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언제나 청년들을 굳게 믿고 강성할 조국의 래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오늘 청년들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인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시대적임무가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우리 식,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과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청년들이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척후대로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목숨바쳐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억척의 성새, 총폭탄이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청년동맹의 제일생명으로 받들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속에 쪼아박고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사상과 신념의 강자, 혁명적도덕의리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조국보위초소로 남먼저 달려나가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조국통일대전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오늘의 리수복, 조군실이 되여야 한다.

인민군대가 강해야 청춘의 행복도 미래도 지켜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원군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고 친혈육의 정으로 도와주는 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상최대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당의 최첨단돌파사상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결사관철하여 지식경제시대의 당당한 주인,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주력군으로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다.

청년들은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과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사상문화, 선군문화로 가차없이 쳐갈기고 고상한 미덕과 미풍으로 원쑤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인권》모략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보고자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온 나라에 청년들의 미풍이 활짝 꽃펴나도록 하는데서 청년동맹일군들이 기관차,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순천철도분국 순천전철대 로동자 김광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오명혁,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제12려단 대대정치지도원 김광성은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우리 시대 청춘들의 참된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것을 실생활체험으로 깊이 깨달았기에 타번지는 불길과 사품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혁명사적건물을 안전하게 보위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청년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수령결사옹위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충정과 보답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맹세로 가슴불태웠다.

유치원시절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만수대언덕에 오른 때로부터 18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바쳐온 평양철도종합대학 학생 오혜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향기그윽한 꽃바다를 펼치고싶어 10여년간 붉은색나리꽃을 정성껏 가꾸어온 라진항 로동자 라원철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평양시려단 대원 박정금은 얼마전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인사를 전달받으며 청춘의 제복과 함께 흘러온 20여년의 돌격대원시절을 원수님께서 다 헤아려주신것만 같아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그는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할 청년돌격대원들의 불타는 맹세를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가사에 담아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의 선장답게,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전사답게 과감한 어로전투를 벌려 지난해 물고기잡이계획을 260%로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대회연단에 나선 문덕수산사업소의 처녀선장 안경희의 토론은 장내를 격동시켰다.

옹진군 장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장 김진일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의 불길높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지난 10여년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애국미를 나라에 바쳐온데 대해 긍지높이 말하였다.

신흥갱목생산사업소 로동자 김은심, 곽산광산 소대장 김용문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으로, 수천척지하막장으로 용약 달려나간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뒤를 이어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청춘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며 부강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뿌리로 삶의 자욱을 새겨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 백두삼천리벌에 영원히 지지 않는 감자꽃바다를 펼쳐가는 대홍단처녀가 되겠다고 한 대홍단군 서두농장 농장원 리은별, 우리 청년들모두를 조국이라는 기름진 대지우에 푸르른 거목으로 자래워주는 자양분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잊지 않고 조국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는데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것을 결의한 회령시산림경영소 로동자 김복실의 토론들에서 참가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아안았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은성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청년강국의 대학생답게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패권자가 될것을 다짐하였다.

송도원청년야외극장 로동자 리혜성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걸어온 원군길은 숭고한 애국의 길, 량심의 길, 신념의 길이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대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참된 전우로 한생을 빛내여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워나갈 일념안고 수도 평양과 정든 고향을 떠나 서해의 최전연 섬초소와 산골마을학교들에 진출한 순위고급중학교 교원 조봄향, 자성군 김명제고급중학교 조아분교 교원 박용국, 운신 못하는 학생의 학습과 병치료를 위해 수년세월 뜨거운 지성을 바쳐온 금야군 금사고급중학교 교원 리경심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학생소년들을 당의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가는 교원혁명가가 되겠다고 말하였다.

정평군 동양고급중학교 소년단지도원 리향옥은 조국의 산림을 지켜 목숨을 바친 12살 소년애국자 리금성을 배출한 학교답게 학생소년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황해북도인민병원 간호원 송윤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심장에 안고 사는 새 세대 보건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이 있기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고 토로하였다.

조국보위에 한몸바친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동행자, 길동무가 되여 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진정을 다 바쳐가는 안주시 덕성고급중학교 소년단지도원 김경애 등의 토론들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철도성 대흥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리종철,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장정화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미풍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는데서 선군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뜨거운 사랑과 진정으로 동맹원들을 이끌어 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 농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로 키워낸 김책시 송중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위원장 안명국은 내 조국의 자랑인 청년미풍의 대화원을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가꾸어나가는 밑거름이 되여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청년동맹일군들이라고 말하였다.

평안남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문찬호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사는 우리 시대 청년들가운데는 교양개조하지 못할 청년이란 단 한명도 없다고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활력있게 벌려 강성국가문패를 달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에 참가한 평안남도청년돌격대 길영조청년돌격대 대장 함영호는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들을 더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과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보답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총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숭고한 미풍의 발현자, 참다운 위훈의 창조자들로 성장한 평천구역출판물보급소 소장 김정순, 은하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옥련, 온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초급당비서 리혜성,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부장 류승남의 토론들은 당과 수령을 충정다해 받들어온 전세대 청년들이 새 세대 청년들에게 하는 절절한 당부로 뜨겁게 울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 깨끗한 량심을 다 바쳐 조국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갈 영예로운 임무가 새 세대 청년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고 하면서 당과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사랑하는 값높은 청춘의 삶을 빛내여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적신화를 창조해나갈 청년들의 열정과 기백이 넘쳐나는 대회장에 조선소년단 축하단이 입장하여 축하시를 랑송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청년전위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페막

지난 4월 10일에 개막되였던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페막되였다.

이번 전시회는 주체적산업미술발전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성, 중앙기관, 각지 산업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완성된 1 300여점의 도안들과 전국의 산업미술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애호가들이 창작한 800여점의 작품들, 80여점의 실현제품들이 전시되였다.

《〈충성〉호 뜨락또르도안》, 《운동신발형태도안》, 《민속명절음식 본보기도안》, 《이불보감 날염도안》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이번 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페막식이 14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였다.

페막식에서는 이번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안들과 제품들을 출품한 창작가들에게 해당한 증서와 메달이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다.

김용진내각부총리가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전시회가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산업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당의 의도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우리의 산업미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4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전승기념탑 《승리》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이 일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관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자유와 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을 벌린 조선인민의 영웅적위훈에 감탄을 표시한다는 글을 남기였다.

우리 나라 4.25녀자배구팀과 웰남국가녀자배구팀

친선경기 진행

우리 나라 4.25녀자배구팀과 웰남국가녀자배구팀사이의 친선경기가 14일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 진행되였다.

체육부문 일군들, 체육인들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두 나라 선수들은 자기 팀의 전술에 맞는 공격과 방어전법들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다양한 쳐넣기와 빠른 공련락에 의한 순간타격, 상대를 기만하며 넘기는 살짝공 등 통쾌하고도 멋있는 득점장면들이 경기장에 펼쳐졌다.

이날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3:2로 상대팀을 이겼다.

앞서 진행된 경기에서도 우리 나라 4.25녀자배구팀이 3:1로 이겼다.

【조선중앙통신】

전쟁로병들을 위한 진정

함흥시 성천강구역 전쟁로병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함흥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늘 관심하며 전쟁로병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은 얼마나 기특한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을 내세워주며 후대들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더욱 꽃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에도 류영옥, 리춘봉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천강구역 광화동 53인민반에서 사는 전쟁로병 김금춘로인의 생일을 뜨겁게 축하해주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인 김남철, 배윤숙동무들은 김금춘로인의 생일을 식구들끼리 조용히 쇠기로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자주 집을 찾아와 어머니의 건강상태며 생활형편 등을 알아보면서 성의를 다하군 하는 고마운 사람들이 이 일을 알면 또 가만있지 않을것이라는 자기나름의 생각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생일날이 되자 함흥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성의가 깃든 별식과 기념품들을 안고 찾아왔고 이어 인민반은 물론 동, 구역의 일군들도 찾아왔다.

함흥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성의는 참으로 뜨거운것이였다. 며칠전부터 김금춘로인의 생일을 놓고 공장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는것이였다. 류영옥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구역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기 시작한것은 10여년전부터였다.

그때만 하여도 공장의 형편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새 세기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류영옥동무는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전반을 책임진 그 바쁜 속에서도 구역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공장적인 사업으로 제기하고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아무리 생산이 긴장하고 사업이 바빠도 그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앓지는 않는가, 입맛은 떨어지지 않는가 등을 일일이 알아보고 따뜻이 위해주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앞에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은 뜨거운것을 삼키군 하였다.

공장에서 마음씨곱고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김향동무가 만사람의 축복속에 특류영예군인과 한가정을 이룬것도 이 나날에 꽃펴난 이야기이다.

지난해에도 공장에서는 광화동 4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전상복로인의 집을 새 집처럼 수리해주었다. 자식이 없이 살던 전쟁로병과 안해는 하루아침에 새 집처럼 달라진 집안에 들어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혁명선배들을 위하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그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 전쟁로병이 어디 전상복로인뿐인가.

전쟁로병들이 흘리는 격정의 눈물, 예로부터 늙으면 눈물이 헤퍼진다는 말이 있지만 전쟁로병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렇게만 볼수 없다.

우리와 만난 김금춘로인을 비롯한 광화동의 전쟁로병들은 함흥은하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인간들을 키워낸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진정의 토로를 하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스위스에 가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출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총회 제68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강하국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이 1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형훈 보건성부상과 스테판 파울 죠스트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전송하였다.

타이외무성대표단 귀국

돈 쁘라맛위나이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외무성대표단이 1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군후방가족의 기쁨

전천군 읍남새전문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장 량태선동무와 그의 안해 박봉숙동무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후방가족이다.

조국의 귀중함을 깨우쳐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당부대로 맏이 효성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둘째 효금이도 형의 뒤를 따라 중학교를 졸업하자 혁명의 군복을 입고 계급의 무기를 손에 틀어잡았다.

얼마전 맏이 효성이가 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뒤이어 효금이가 군사복무를 잘하고있다는 소식을 담은 편지가 날아왔다.

로농통신원 김경묵

일본당국의 극악한 파쑈폭거와 력사외곡책동을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조일우호친선협회 성명

지난 5월 12일 일본반동들은 교또부와 가나가와, 야마구찌, 시마네현경찰깡패들을 내몰아 백주에 3명의 총련일군들에게 쇠고랑을 채워 련행하고 그들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악랄하게 감행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전대미문의 비인간적인 탄압만행을 치솟는 격분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은 세계면전에서 입버릇처럼 떠들던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야만의 나라, 불망나니 깡패국가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일본의 경찰당국것들이 이번에 제놈들이 체포해간 총련일군들이 《조선산 송이버섯을 일본에 수입》하여 《외환법》을 위반한 사건에 관계된다는 나발을 불어대고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한갖 허위와 날조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강조하였지만 강제로 체포련행된 총련일군들로 말하면 제기된 혐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것들은 불법무도하게 무고한 총련일군들을 《죄인》으로 둔갑시켜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족쇄를 마구 채워 끌고가는 비인간적이며 악랄한 폭거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총련이 결성되여 6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 일본반동들의 반총련, 반조선인책동이 어느 하루도 그칠새없었지만 지금처럼 끈질기게, 광란적으로 감행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번에 경찰당국것들과 언론나팔수들이 총동원되여 꺼리낌없이 감행한 강제수색과 체포소동과정에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체질화된 저렬성과 삐뚤어진 속통을 세계앞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더구나 이번에 일본반동들은 부당하게 체포해간 일군들중의 1명이 총련중앙의장의 아들이라는것을 사건 즉시 모든 언론들에 대대적으로 류포시킴으로써 마치도 총련조직자체가 그 어떤 위법집단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범죄적흉계가 바로 총련의 영상을 깎아내려 재일동포들을 어떻게 하나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려는 검은 속심에서 출발된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원래 정치적야욕실현과 집권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강화에서 찾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상투적인 악랄한 수법이다.

지금 일본당국은 미국과의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제놈들의 군사대국화야망실현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보려 하는 한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땅에서 공화국의 당당하고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부터 말살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책동의 도수를 높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증오심은 천백배로 높아질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온갖 허위와 날조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매달린다 하여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의로운 활동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한 총련일군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한다.

주체104(2015)년 5월 14일
평 양

일본당국은 불법체포한 총련일군들을 즉시 석방하고 우리 민족앞에 사죄해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야수적탄압만행이 더욱 로골화되여 전체 조선민족을 치솟는 분노로 들끓게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2일 일본합동수사본부 경찰들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비롯한 3명의 총련일군들에게 그 무슨 《동방주식회사의 외환법위반》이라는 무근거한 혐의를 들씌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어가고 그들의 살림집을 강제수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이 경찰들을 내몰아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저지른 깡패행위는 아무런 법률적타당성도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망동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총련을 탄압말살하려는 극악한 모략과 음모의 산물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총련일군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야만적인 체포탄압만행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도발로, 불법무법의 인권유린만행으로, 극악무도한 파쑈적탄압으로 락인하고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어떤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과학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해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 제정된 절차에 따라 법을 시행하는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인 법률적용원칙이며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일본경찰패당은 《조선산 송이버섯을 수입》하였다고 하는 동방주식회사와 련계된 그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조사도 없이 이른아침 이리떼같이 달려들어 무고한 총련일군들을 폭도나 테로분자와 같이 취급하며 수갑을 채워 체포하고 가택수색을 단행하는 천하무도한 깡패짓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일본언론들은 경찰의 강제체포소동이 있은 후 불과 5분만에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조선총련 의장의 차남체포》라는 표제로 대서특필하였다.

사실은 이번 총련일군들에 대한 탄압소동이 치밀한 사전각본과 준비에 따라 강행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하기에 지금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의 법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은 무지막지한 일본경찰깡패들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총련탄압만행에 경악하면서 일본당국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정치테로행위로 단죄하며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번 총련일군들에 대한 체포소동은 총련에 《위법단체》, 《범죄단체》의 모자를 씌워 말살하며 일본사회에 반총련, 반공화국분위기를 고취하여 군국주의부활과 아시아재침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일본반동들의 파쑈적망동은 지난날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전대미문의 대죄악우에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을 덧쌓는 범죄행위로서 7천만 우리 겨레의 반일기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일본당국은 모략적인 총련탄압책동이 초래할 파멸적후과를 똑똑히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불법체포한 총련일군들을 즉시 석방하고 우리 민족앞에 사죄해야 한다.

일본의 지각있는 법률가들과 국제사회는 일본당국의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총련탄압책동의 불순한 기도를 똑바로 보고 이를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5월 14일
평 양

총련에 대한 적대행위는 곧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총련을 절대로 어쩔수 없다

조국에 찾아오는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을 정답게 맞아주고 따뜻이 위해주는데서 더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우리 기관 일군들에게 있어서 이번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소동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치떨리는 망동이다.

지금껏 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일본반동들이 모략사건들을 수없이 조작하였지만 지난 3월의 총련의장과 부의장의 집에 대한 강제수색사건과 이번의 체포수색소동처럼 유치하고 비렬한 사건은 일찌기 없었다.

보라.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악의와 파쑈적광기가 과연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야말로 선군의 기치밑에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이 뒤틀린자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세이다.

묻건대 그따위 파렴치하고 너절한 수법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말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보건대 총련에 대한 탄압으로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 속심인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서푼짜리 모략극을 골백번 꾸미며 탄압의 광풍을 일으켜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불패의 기상을 과시하는 우리 공화국을 따르며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애국의 궤도따라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대오 총련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테로와 끈질긴 박해책동은 백년숙적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과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굳혀줄뿐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보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반총련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날뛴다 해도 선군의 기치밑에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절대로 어쩔수 없다.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 진 국

법치가 아니라 린치이다

일본당국과 경찰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기습적인 파쑈탄압을 가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치솟는 분노를 억제할수 없다.

일본경찰깡패들이 이른새벽 도적고양이마냥 총련일군들의 집에 뛰여들어 가택수색과 체포소동을 벌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언론을 통해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둘째아들을 《사건혐의자》로 공개하며 법석 떠들어댄 꼴을 보면 그것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른것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일본당국이 이번 탄압소동도 《법치국가로서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로 묘사하고있는데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죄없는 사람들을 무작정 체포하고 가택수색을 할수 있는가. 또 립증도 되지 않은 범죄혐의를 놓고 재판결과를 발표하듯 여론을 오도하는것이 과연 소송법적절차에 따르는 행위란 말인가. 이야말로 법치가 아니라 린치이다.

파쑈경찰과 어용언론을 내세워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에 칼을 박는 일본당국자들의 탄압만행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인권범죄이다. 그따위 치졸한 수법으로 총련결성 60돐을 마중해가고있는 재일동포사회의 경축분위기를 깨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림도 없다.

총련일군들에 대한 체포와 가택수색은 곧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로 된다. 일본반동들의 범죄적망동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오만무례한 반총련탄압만행의 대가를 일제의 과거죄악과 함께 백배, 천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강좌장 조 광 협

대일적개심을 치솟게 하는 야만행위

바다건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백주에 깡패들이 총련일군들과 그 가족들에게 달려들어 무지막지한 폭거를 저지른것은 잔악무도하고 야시꼽기 그지없는 섬나라족속들에 대한 혐오감과 치솟는 격분을 자아낸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거세말살할것을 노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정치테로행위이다.

총련에 대한 도발은 곧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력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것이 너무도 많다.

일본에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해 천백번 머리숙여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회피할수 없는 법적의무와 력사적책임이 있다.

올해는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해인것으로 하여 일본정객들은 그 어느때보다 입부리를 조심히 놀리고 행동 하나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본반동들은 반성은커녕 도리여 재침의 칼을 빼들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다.

최근에 민족배타주의에 물젖은 일본의 극우익깡패들이 전례없이 날뛰는 속에 우리 총련일군들을 표적으로 삼은 강제수색과 체포소동이 뻔질나게 감행되고있는것을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도수를 넘은 그러한 적대행위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심과 복수심을 천백배로 더해주고있다. 백년숙적 일본반동들에게는 추호의 타협이나 관용이 필요없다.

오직 무자비한 징벌과 철저한 결산만이 있을뿐이다.

우리는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과학자들의 이름으로 일본반동들의 야만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민족적권리와 존엄을 지켜 일떠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조 희 승

천하의 날강도, 야만의 무리

지난 3월 총련의장과 부의장의 집에 들이닥쳐 강제적인 수색놀음을 벌린 일본반동들이 며칠전 또다시 총련동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및 가택수색을 감행했다니 이런 날강도, 야만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정말 일본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심을 금할수 없다.

도대체 일본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그처럼 악착스럽게 탄압할 리유가 무엇인가. 언제나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우리 동포들이 일본경찰의 탄압을 받아야 할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섬나라깡패들은 무슨 큰 죄인이나 잡은듯이 어마어마한 살풍경을 펼치면서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이것을 우리 인민들이 과연 어떻게 참고견딜수 있겠는가.

재일조선인문제의 발생경위로 보나 국제법적요구로 보나 일본당국에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고 적극 보호해주어야 할 회피할수 없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과거 저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치떨리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고사하고 재일동포들을 못살게 굴고 박해하다못해 나중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한 테로행위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이 얼마나 간악한짓인가.

일본반동들이 이런 비렬하고 악랄한 파쑈적만행을 저지른 목적은 뻔하다. 살벌한 폭압만행으로 총련조직을 없애버리고 재일동포들을 어머니조국과 떼여놓자는것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그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주체의 조국을 변함없이 따르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의 신념은 끄떡없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탄압책동에 꿋꿋이 맞서싸우며 애국위업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면서 그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맞추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다 바치겠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박 금 주

과거사회피로 거센 역풍을 맞고있다

남조선방송들이 보도

남조선 《MBC》, 《KBS》 방송들이 일본수상 아베가 미국행각과정에 연설에서 과거 침략력사를 외곡하며 옳바른 범죄청산을 하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였다.

방송들은 이번에 아베가 미국에서 한 연설에서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회피하고 사죄하지 않은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단죄하였다.

미국내에서 보도자료, 기자회견, 성명들을 통해 과거사를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있는 아베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은 응당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침략전쟁력사에 대해 교과서에 기록하고 옳바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들은 과거사를 회피하려던 아베의 시도가 거센 역풍을 맞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한 인정과 법적책임을 요구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4월 29일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수요집회를 가지고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집권자를 규탄하였다.

단체는 전범국 일본의 수상 아베가 이날 미국에서 그 무슨 연설을 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되도록 성노예범죄에 대한 그 어떤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아베의 연설놀음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인권침해라고 단죄하였다.

일본은 응당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범죄를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다하겠다는것을 언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은 그들스스로가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중대한 녀성인권유린행위로 규정하고 분명한 책임리행을 촉구했던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비렬한 총련탄압을 준렬히 규탄하는 재일동포들

영예군인들을 한식솔로 여기고

룡천군 양서농장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룡천군 읍 3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김승철동무는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들의 뜨거운 진정을 대할 때마다 살림집을 잘 지어주고 번듯하게 꾸려준 양서농장의 일군들을 추억하군 한다.

두해전 11월말 어느날이였다.

군에 회의를 갔던 양서농장 초급당비서 리석찬동무는 군의 한 일군으로부터 읍에서 살고있는 한 특류영예군인의 살림집건설이 늦어져 걱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였다.

리석찬동무는 그날밤 도무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추위가 닥쳐오고있는데 아직 살림집건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있다면 그 특류영예군인은 다른 곳에서 불편하게 겨울을 나게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한시간이 새로왔다.

다음날 아침일찍 그는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짓는다는 살림집건설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살림집건설은 아직 기초나 해놓은데 불과하였다.

초급당비서는 살림집건설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는 돌아오는 길로 관리위원장 라영식동무와 마주앉아 영예군인의 살림집을 빠른 기간에 잘 일떠세울 작전을 폈다.

그리하여 다음날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리향신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15명의 건설로력이 편성되여 영예군인살림집건설장으로 달려갔다. 농장의 일군들은 세멘트와 모래, 목재와 기와, 블로크 등 필요한 자재들을 련속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수 있게 하였다.

초급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은 교대로 살림집건설장에 나가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그리하여 12일동안에 살림집건설이 완공되고 그 특류영예군인은 새로 잘 꾸려진 살림집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겨울을 나게 되였다.

한 영예군인을 위한 이런 진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다음해 봄에 접어들면서 초급당일군들은 다시 그 특류영예군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들은 겨울을 난 살림집의 주변도 깨끗이 정리해주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손질해주고서야 돌아갔다.

특류영예군인 김승철동무는 친부모와 같은 그들의 뜨거운 진정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하기에 김승철동무는 영농작업으로 한창 바쁠 때마다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안고 이곳 농업근로자들을 찾아와 고무해주군 하였다.

어찌 그 영예군인만이겠는가.

농장의 일군들은 읍에서 살고있는 어느 한 영예군인을 농장의 한성원으로 여기고 매달 그의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그와 가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은 자기 농장의 영예군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매일같이 알아보고 풀어주는것을 친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해나가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은 제7작업반의 영예군인 홍창혁동무의 결혼상도 차려주고 텔레비죤을 비롯한 수십점의 가정용품과 부엌세간도 마련해주었으며 한달에 두세번씩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영예군인들을 한식솔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 감동깊은 소행들은 계속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미제의 만고의 죄악을 고발하며 드러난 피의 지층

신천군 원암리 밤나무골 화약창고주변에서 인민들의 유해와 유물 새로 발굴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창조와 혁신의 새 소식들이, 인간사랑의 화원속에서 끝없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시대의 교향곡으로 가슴벅차게 들려온다. 허나 오늘 우리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끓이며 복수를 다짐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전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으며 적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의 지층이 드러났다. 또다시!

얼마전 신천군 원암리 밤나무골 화약창고주변에서 38구의 유해와 많은 유물들이 발굴된것이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차에 걸쳐 발굴된 유해와 유물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을 낱낱이 보여주고있다.

형체조차 알수 없게 변한 유해들가운데는 녹이 쓴 호미날이 박혀있는 얼굴뼈와 정수리뼈들, 부서지고 부러진 두개골들과 팔다리뼈, 채 뚫지 못한 총탄이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 부분의 뼈들이 있어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여기는 미제살인귀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유해와 함께 단추, 혁띠고리, 고무줄, 신발바닥과 같은 유물들이 나지고 녀성으로 추측되는 유해의 바로 곁에서는 은가락지와 거울, 동백기름병도 발굴되였으며 깨여진 사발과 동숟가락, 꽁꽁 포개여진 종이묶음도 나지였다.

그 유물들을 볼수록 가슴이 저려든다. 깨여진 그 사발은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주려고 정히 싸들고 나섰던 밥그릇은 아닌지, 수십년세월이 흘러 지금은 비록 볼수 없어도 꽁꽁 포개여진 그 작은 종이마다에 행복의 래일에 대한 소중한 꿈이 적혀있었던것은 아닌지, 해방덕에 부러운것 없이 잘살게 된 밝은 모습을 자꾸자꾸 비추어보고싶어 늘 간직하고 다녔을지도 모를 그 거울의 주인은 누구인지…

7㎡정도밖에 안되는 구뎅이안에서 발굴된 수십구의 유해와 많은 유물들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던 우리 조국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피비린 살륙과 략탈을 일삼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현지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원암리 밤나무골 화약창고의 앞지대는 물이 흐르는 합수목이였다고 한다. 정신착란증에 걸린 승냥이 미제와 그 앞잡이 계급적원쑤들은 무고한 주민들의 시체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을 그곳 습지대의 우묵한 곳에 처넣고 그우에 벽돌장을 마구 던져넣었다. 정신을 차리고 기여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쏘고 몽둥이로 머리를 마구 내리쳐 두개골을 부시고 팔다리를 분질러놓았으며 턱뼈를 으깨여놓고 등뼈를 끊어 무참히 학살하였다.

아직도 피물이 축축히 배인듯한 땅속에서 파헤쳐진 유해와 유물들은 죽어서도 봉분에 잠들지 못한 억울한 령혼들의 울부짖음을 그대로 전하는듯싶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사람잡이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며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만 5 383명을 무참히 학살한 승냥이 미제, 원암리 밤나무골에서만도 원쑤놈들은 400명의 어머니들과 102명의 어린이들을 처참하게 학살하였다.

지금도 복수를 부르는 그들의 함성이 우리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원쑤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증거물들은 련이어 발굴되고있다.

올해에는 그 화약창고주변에서 3개의 시한폭탄도 발견되였다. 100㎏, 30㎏, 15㎏짜리 시한폭탄들은 우리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 삶의 요람을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뛴 미제의 야만성과 악랄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압살하려고 피를 물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악착한 야수적인 살인마들이다.

원쑤들의 죄행을 폭로하며 아직 잠들지 못한 억울한 령혼들이 이 땅 어느곳에 더 묻혀있는지 누가 알랴. 그 령혼들은 지금도 우리를 복수에로 부르고있다.

새 세대들이여, 잊지 말라, 이 땅에 묻혀있는 수많은 령혼들의 피의 절규, 천인공노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을.

그리고 피의 지층을 안고있는 이 땅에서 복수의 총창을 더 날카로이 벼리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기 위해!

글 본사기자 오 은 별
사진 본사기자 전 성 남

절세위인의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행복넘치는 조선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전도는 밝게 웃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력력히 반영된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이 땅우에 인류가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지상락원을 꾸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시설물들에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육아원과 애육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이 원아들에게 옳바른 도덕품성과 창발성, 자립성, 독자성을 키워주어 그들속에서 인민군대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며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애육원원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시였으며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김정은령도자의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특별히 사람들을 감복시킨다고 하면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의 볼을 다독여주시고 식사하는 모습까지 오래동안 보아주시며 친부모보다 더 따뜻한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전례없는 대규모의 조선소년단창립과 관련한 경축행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행사에 참석하시여 학생소년들을 곁에 앉히고 다정하게 담화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고 매혹적이였다고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세상사람들의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세계의 큰 관심이 쏠리고있다.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야영소개건을 발기하시고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여 오늘과 같은 세계일등급의 야영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다. 참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은동지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의 세심한 령도의 자욱이 어린 이 아동병원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웅장하게 일떠선 병원의 황홀함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최신의료설비들뿐아니라 여러 치료실들과 놀이장 등 동심에 맞게 완벽하게 꾸려진 이곳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어린이보건기지이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사랑의 화원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만을 누리며 언제나 웃음과 랑만에 넘쳐있을것이다.》

나이제리아 보르노주정부 비서는 어느 한 회견에서 자기가 조선에 체류하고있는 기간 참관을 통하여 새 세대들에게 안겨주고있는 조선당과 정부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장래는 새 세대들의 모습에 비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조선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확신하게 되였다.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고 그것을 절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도 깊은가를 잘 알게 되였다.

바로 이 사랑과 은정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복받은 행복동이들로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려가고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일떠선 이렇듯 희한한 궁전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그야말로 조선은 아이들의 세상이다. 정말 뜨거운 후대사랑의 절정을 보았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란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 세상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뻬루위원회는 성명에서 어린이들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진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매한 풍모에 세계가 감동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의 어린이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후비대로 자라날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각국의 언론들도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면서 평범한 군관의 자식에게 첫돌선물도 안겨주시고 인민야외빙상장에서 스케트를 타는 아이들의 귀여운 응석도 받아주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에 대해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입힐 외투견본도 하나하나 보아주신 감동깊은 이야기와 행복속에 웃을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그려보시며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소년단야영소들에도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소식, 새로 건설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원아들에게 먹일 물고기량을 몸소 수첩에 계산해보신 이야기는 세상사람들을 커다란 감동으로 가슴설레이게 하고있다.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위인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실로 국제사회계가 격찬하듯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온 나라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더욱더 아름답게 꽃펴날것이다.

본사기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얼마전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한 일본집권자는 일제패망 7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발표할 담화에 침략과 사죄 등의 표현을 넣겠는가고 묻는 질문에 력대 내각의 력사인식을 계승한다고 이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면 담화를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였다. 말하자면 자기는 발표하게 될 담화에 침략과 사죄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일본집권자의 궤변은 과거사반성을 어물쩍해넘기고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낸것으로서 세계의 정의의 목소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다.

국제사회는 과거력사를 진심으로 대하려 하지 않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써가며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집권자에게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있다.

비난은 자국내에서도 쏟아져나오고있다.

전 일본수상 무라야마는 과거력사를 한사코 부정하는 현 집권자의 그릇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전 수상 하또야마도 현 집권자가 발표하려는 담화에 식민지통치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킬것을 강조하였다.

손우동맹자인 미국도 일본집권자를 비난하고있다. 미국회 의원 25명이 일본집권자가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를 재확인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비롯한 과거범죄력사에 대해 공식 사죄할것을 촉구하는 련명으로 된 서한을 일본정부에 보내였다. 영국신문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들도 일제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일본이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할것을 일제히 요구하였다.

오늘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피묻은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있는것은 하나의 국제적흐름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7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일본만은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죄악의 력사를 덧쌓고있다.

1970년당시 서부도이췰란드수상이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 있는 유태인희생자추모비앞에서 두무릎을 꿇고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때에도, 도이췰란드가 전쟁책임을 국가의 명의로 공식 인정, 사죄하고 피해국들과 피해자들을 배상대상으로 정하고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있을 때에도 일본은 줄곧 과거청산에 대한 국가적, 법적, 도덕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여왔다.

과거범죄를 극구 부인하고 교활한 말장난으로 그 책임을 회피해보려 하는것은 일본특유의 간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은 응당 청산해야 할 과거죄악을 성근히 인정하고 반성할 대신 그것을 찬미하며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수급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통치를 《합법적》인것으로 묘사하였다.

력사교과서수정놀음에 매여달리면서 《침략정의미정론》과 같은 온갖 궤변들로 력사를 미화분식하여왔다. 지어는 성노예피해자들을 《인신매매피해자》라고 모독하면서 과거죄악의 범죄성을 약화시키려고 꾀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비롯한 과거범죄를 사죄하고 청산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저렬성과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과거청산은 남을 위해서 필요한것이 아니라 일본자신을 위해 필요한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일본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는 결코 지워질수 없다.

력사적총화의 견지에서 보나 미래지향의 견지에서 보나 올해는 일본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계기로 된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패망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하루빨리 어지러운 과거사를 인정하는 계기로 되여야 할 이해에 일본이 도리여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린다면 차례질것은 국제적고립과 저주와 규탄뿐이다.

일본반동들이 세계의 정의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게 군국화의 길로 나갈수록 국제사회의 대일증오심은 더욱 증대될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것이 아니다.

일본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많은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하는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김철룡

조국광복회창립 79돐 기념행사 기네에서 진행

《조선의 첫 혁명적인 민족통일전선체-조국광복회》라는 주제의 강연회와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에 대한 감상회가 5일 기네 크리스탈물생산공장에서 진행되였다.

공장부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 신앙에 관계없이 전민족적인 대단합을 실현한다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이 조선사람들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조선인민에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79년전에 조국광복회라는 조직건설을 통하여 통일전선을 이룩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립하고 이끄신 조선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다.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신 주석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마침내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창립후 짧은 기간에 범민족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였으며 조선해방위업을 성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전통이 있어 조선인민은 해방후 미국에 의하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오늘까지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천명되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였으며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민족통일전선운동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한 민족대단결의 위력한 무기가 있고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리행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지가 있는 한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영국단체 인터네트에 소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4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여》라는 제목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맞이할 때마다 조선의 근로자들은 남다른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그것은 자기들처럼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자주적존엄을 떨쳐가며 보람찬 삶을 누리는 근로자들이 이 세상에 더는 없기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를 놓고보아도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글은 공장에 깃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렬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사랑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뜨겁게 이어지고있다.

2013년 10월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부하신대로 로동자합숙을 자신께서 책임지고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부지도 정해주시고 건설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풀어주시였다.

2014년 4월 완공의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합숙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또한 새로 건설한 합숙에서 5.1절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축하해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정을 대를 이어 꽃피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태여난 로동자들의 사랑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며 정다운 보금자리이다.

남남협조의 확대강화 호소

아프리카동맹의 한 고위관리가 최근 남남협조를 확대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가 남남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남남협조는 두 대륙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힘있는 무기라고 말하였다. 그는 현시기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신식민주의적인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려면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이 남남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그릇된 시도 비난

수리아외무성 부상이 9일 미국의 그릇된 시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역에서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고 이스라엘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극단분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주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오만한 간섭정책과 힘에 의한 정권교체정책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과거력사를 인정할것을 요구

세계력사학자 187명이 최근 련명으로 된 서한을 일본정부에 보내여 과거력사를 인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서한은 력사문제에서 가장 첨예한것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이며 그 증거도 명백하다고 하면서 일본집권자가 력사적사실을 반드시 시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정보산업발전노력

인도네시아정부가 최근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빛섬유케블망을 새로 구축하였다. 동부의 파푸아주로부터 말루꾸주와 쑬라웨씨섬을 련결하는 이 빛섬유케블망은 그 연장길이가 8 772㎞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 망을 나라의 최서단 아쩨주의 싸방시까지 계속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업생산 장성

인디아에서 2월에 공업생산이 5% 장성하였다. 이것은 최근 9개월동안에 가장 높은 장성률이라고 한다. 얼마전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교통운수발전노력

먄마정부가 교통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그 한 고리로 양곤시에 뻐스사업소를 새로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다. 최신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운영 및 봉사체계를 갖추게 되는 이 사업소는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한다.

고속철도 건설

케니아에서 고속철도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몸바사항과 나이로비를 련결하는 이 철도는 4개월후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새 고속철도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한다.

제조업부문생산 증대

싱가포르에서 1.4분기에 제조업부문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가스수송관부설공사

《로골화되는 침략전쟁준비책동》

새로운 무장장비배비

미국이 일본에 새로운 무장장비를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9일 미국정부는 2017년부터 일본의 요꼬다기지에 특수작전용 《CV-22 오스프레이》수직리착륙수송기를 배비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주변지역 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무장장비현대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무장장비현대화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UPI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미륙군이 아리조나주에 있는 한 시험장에서 155㎜포탄의 정밀도를 높일수 있는 정밀유도장치에 대한 시험을 강행하였다. 시험에서는 정밀유도장치가 설치된 포탄들을 자행곡사포로 발사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핵무장화

이스라엘이 핵무장화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7일 이스라엘국방성은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자행탄도미싸일의 시험발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책동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부패한 자본주의사회

총기류범죄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3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고있다. 이날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한편 프랑스의 빠리교외에서 4월 30일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이날 복면을 한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들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목표로 마구 사격을 가하여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딸리아의 밀라노시에서도 최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이날 시의 재판소에서 재판과정에 50대의 한 남성이 마구 총질을 하여 3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취업형편 악화

에스빠냐에서 주민들의 취업형편이 악화되고있다. 얼마전 이 나라 통계국은 올해 1.4분기에 전국적인 취업자수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11만 4 300명 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

일본에서 물가가 뛰여오르고있다. 1일 이 나라 총무성은 3월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마약람용 성행

오스트랄리아에서 마약의 일종인 메탐페타민람용현상이 우심하여 사회적문제거리로 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년간 마약람용자수가 40만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중 대다수가 청년들이라고 한다.

가정폭력행위

오스트랄리아에서 가정폭력행위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4일 이 나라의 ABC방송은 올해에 들어와 첫 4개월동안에 전국적으로 34명의 녀성들이 가정내에서의 각종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방송은 지금 나라에서 가정폭력이 하나의 류행병으로 만연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타이의 해안가

네팔에서 지진피해 계속 확대

네팔에서 최근에 있은 강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현재 사망자수는 7 557명으로 늘어나고 1만 4 536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번 지진으로 800만명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적어도 200만명의 리재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손탁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최근 유럽동맹이 군사분야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자기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동맹이 자체의 군사무력인 유럽군을 창설하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지난 3월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유럽동맹에 대한 모든 위협들에 대처하여 동맹이 자체의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유럽동맹이 자체의 무력을 가지게 되면 성원국이나 이웃나라들의 평화에 대한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유럽군은 유럽동맹의 대외정책적지위를 회복시키는데 전심전력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유럽주둔 나토무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유럽동맹을 위한 또 다른 군사무력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였겠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바로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기구이기때문이다.

나토는 조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을 실현하는데 복종되여왔다. 나토는 1949년 4월 미국이 주동이 되여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나라들을 위주로 조직된 군사기구이다.

미국은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서방나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원국들에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설치해놓고 여기에 저들의 병력과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살인무기들을 전개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미국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지배주의적인 투쟁을 탄압하는데 나토를 리용하였다.

랭전종식후 나토의 존재명분은 없어졌지만 미국은 계속이 침략적군사기구를 유지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도구로 리용해오고있다. 현재 미국은 나토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였다.

나토에 가입한 유럽나라들은 미국주도하의 이 군사기구에 의존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는것으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유럽을 건설하려는 구상밑에 유럽동맹이 창설된 후 여러 나라의 정계인물들속에서는 유럽이 자체의 안전보장을 계속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존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자주 울려나왔다.

알려진것처럼 나토성원국들은 나토의 지도기관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들을 자기 나라 국회의 비준을 받음이 없이 반드시 리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리익을 반영한 나토의 결정들이 설사 해당 나라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되여도 의무적으로 그것을 리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렇게 나토를 통하여 유럽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얽어매놓고 유럽에 대한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이런 불공평한 군사적종속관계를 유럽나라들이 달가와할리가 없었다.

유럽동맹의 궁극적목적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음이 없이 유럽나라들의 모든 활동을 지역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호상협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유럽나라들사이의 경제적통합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일체화도 실현하는것이 동맹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여왔다.

유럽군을 창설하여 독자적인 안보체계를 수립하려는 유럽나라들의 시도와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서유럽나라들이 1992년부터 나토안에 유럽방위기둥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것, 1999년 도이췰란드와 프랑스가 이전에 조직된 유럽군단을 유럽신속방위군단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 2003년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수뇌자회의에서 독자적인 유럽방위무력창설문제를 토의한것, 2004년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진행된 유럽동맹 성원국 국방상회의에서 분쟁지역들에 전개될 독자적인 신속반응무력창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합의한것, 2006년 유럽동맹의 첫 《공동방위기금》을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한것 등 독자적인 무력창설을 위한 유럽의 움직임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여왔다.

이번에 또다시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나토와 별도로 유럽군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미국의 독단과 일방주의, 강권을 반대하고 유럽동맹의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하기에 이 제안은 많은 유럽나라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도이췰란드와 체스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서고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유럽인의 미래와 안전은 자체의 군대를 가질 때에만 담보될수 있다고 하면서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체스꼬대통령도 이 제안을 적극 지지해나서면서 유럽동맹이 자체의 군대를 조직함으로써 미국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문제를 제멋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자기들의 령토에서 미군이 유럽의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나토의 기발을 달고 돌아치는것을 바라지 않는 유럽나라들의 내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물론 유럽군을 창설하는 문제는 당장에 실현될수 없으며 많은 애로들을 극복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뒤에라야 결과를 볼수 있다. 그러나 유럽동맹이 이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근기있게 내밀고있으며 또 유럽나라들의 군사적잠재력도 점차 강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군창설은 현실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유럽군은 나토와 경쟁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유럽에 미국주도의 나토와 유럽군이 병존하게 된다면 불피코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더한층 악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안철권

ㄱ-51075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